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너의 밤
수상내역	동상
작가	김민정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소년가장 지희와 지희에게 관심이 가는 재현. 재현이가 지켜보는 지희의 밤은 서글프다.

프롤로그 PC방 입구, 횡단보도 (야외/밤)

입구를 빠져나오는 남학생 무리. 떠들썩하게 나와서는 각자 헤어진다. 혼자 대로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는 재현. 재현은 신호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만진다. 핸드폰 액정에는 10:34pm. 재생되던 음악이 끝나 멈추는 화면이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펄럭이는 소리. 고개를 드는 재현. 건너편에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은 지희와 눈이 마주친다. 재현과 마주친 눈을 피하지 않는 지희.

타이틀 - 너의 밤

S#1 (프롤로그의) 횡단보도 (야외/아침)

재현은 꽤나 북적이는 사람들 뒤쪽 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린다. 고개를 숙인 채 노래를 들으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다. 재현은 앞에 서 있는 H고 교복을 입은 지희의 다리를 보게 된다. 스타킹을 신은 오른 쪽 다리가 치마 쪽 허벅지부터 오금까지 쪽 찢어져있다.

재현은 사람들의 움직이는 발을 보고 그대로 걷는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던 지희와 팔이 부딪히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재현.

재현

(혼잣말로) 아, 씨발.

재현이 핸드폰을 줍고 몸을 일으킨다. 그에 앞으로 걸어 나가며 뒤를 돌아 여학생을 노려보다가 걸음을 멈춘다. 지희도 재현을 쳐다본다.

재현

.....어? 어제,

신호가 곧 바뀔을 알리는 소리에 뛰어가지만 힐끔힐끔 뒤를 돌아 지희를 쳐다본다.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다.

S#2 H고 후문 앞 (야외/오후)

하교 시간, 지나가는 학생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벽에 기대어 서있는 재현. 여학생이 지나가면 빠르게 얼굴을 훑고 안 본 척 한다. 그러기를 몇 번,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는 지희를 본다. 잠깐 스치듯 눈이 마주치지만 걸어가는 지희. 멍하니 눈으로 쫓는 재현. 다리를 쳐다보니 스타킹은 멀쩡하다. 친구들이 교문을 나오며 재현을 친다.

친구 1

야, 야. 피씨방 가자.

친구 2

나 근데 어제 돈 다 썼는데.

친구 3

값아라. 나도 이제 없음.

재현

어, 야..., 야, 잠깐만...

얼떨떨하게 떠밀리며 친구들 무리와 함께 도로로 향하는 재현. 친구들과 걷다가 멈추는 지희. 걸어가는 재현과 친구들 무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아예 뒤로 돌아 서 있는 지희. 그런 지희에 앞서 걷던 친구들이 다시 지희에게로 걸어온다.

지희 친구

왜?

지희가 친구를 바라보고는 아무 말 않고 다시 걷는다. 따라 걷는 친구들.

S#3 골목길 (야외/밤)

교복을 입은 채로 더 골목에서 나와 길을 걷는 재현 B.F.

재현 E

야, 너네 아까 개, 알아?
머리 왜, 어깨까지 오는데 눈 좀 작은 애.

친구 2 E

빨간 가방?

재현 E

그 옆.

S#4 H고 후문 앞 (야외/오후) – S#2와 이어짐

친구 3

……. (굳은 표정으로 친구 1과 2를 쳐다본다.)

친구 1

왜?

재현

…그냥.

이어 욕을 하며 비웃는 친구들의 뒤섞인 목소리.

친구 2

등신.

친구 1

윤지희. 그냥 평범해.

근데 좀,

재현

좀, 이상해?

친구 1

어. 학교에서 몸 판다는 소문 있던데.

(말을 끝내며 친구 2·3의 어깨를 툭 친다.)

친구 2

(엄청 크게 웃으며) 씨발, 미친놈아.

친구 3의 표정이 더 굳는다. 인상 쓴 친구 3이 친구 1의 신발 끝을 약하게 찬다. 친구 1이 고개를 돌려 친구 3을 보고는 웃으며 친구 3의 어깨에 팔을 두른다.

친구 2

그거 말고는 그냥 평범한 년인데…,

(친구 1의 어깨를 치며) 와, 근데 이거 진짜 또라이네.

친구 3

윤지희 얘기는 왜 계속해?

그만 가자. 가자고. (애들이 무시하자) 야! 가자고, 씨발!

S#5 횡단보도 앞 (야외/밤)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대는 재현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에 10:18pm이 표시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조금 발갛게 변한 귀와 코, 볼. 서서 제자리를 돌다가 쭈그러 앉는 재현.

INS> 어두운 밤 하늘. 화려한 번화가의 네온사인 풍경.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펄럭이는 소리.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재현. 옆에 쭈그러 앉아 재현을 마주보는 지희. 무표정하게 보다가 웃는다. 세일러문 옷을 입고 있다. 침묵.

재현

안 추워?

지희

추워.

재현

.....

지희

너 안 배고파?

재현

...배고파.

S#6 지희 집 안 (실내/밤)

라면, 과자 봉지들이 담긴 휴지통을 바라본다. 지희가 풀러 놓은 리본 끈을 만지던 재현, 과자봉지를 뜯어 방바닥에 내려놓고 봉지라면을 부수는 지희의 모습을 옆에서 쳐다본다.

재현

너 같은 애 처음 봐.

지희
어.

재현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이래?

지희
그냥. 배고프니까.

스프를 넣고 흔들던 라면 봉지를 내려놓고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는 지희.

재현
배고프면 너 혼자 먹어도 되잖아.

지희
...너 안 먹을 거야?

재현
아니.

지희
근데 왜?

재현
...몰라.

웃으며 요구르트를 건네는 지희.

과자와 라면을 나눠 먹는다. 먹으며 대화하는 재현과 지희. 한결 풀린 표정의 재현과 웃는 얼굴의 지희. 다 비워져 놓여있는 봉지들. 배터리가 다 되어 종료되는 핸드폰. 어두워진 창밖.

S#7 지희 집 앞 골목 (야외/밤)

집을 나서 걷다가 잠시 뒤돌아서 쳐다보는 재현.

S#8 재현 집 (실내/아침)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재현과 재현의 아버지.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부자. 드라마에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고 서로를 끌어안은 고등학생들이 화면에 나온다.

아버지

그래. 중학교면 몰라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진짜 평생 가는 거야.

재현

어.

아버지

사회 나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같은 사람?
진짜 사귀기 힘들어. 넌 모르지, 임마?

재현

어, 그렇지.

아버지

뭐, 맨날 친구들이랑 피씨방이나 놀러 댕기지만 말고,
저런 진짜 친구를 사귀란 말이야. 알아 듣겠어?

재현

어.

아버지

근데 이게. 그렇게 (재현을 따라하며) 어, 어, 하지만 말고.

재현

(약간 신경질적으로) 어.

아버지

넌 저런 친구도 없지? 순 피씨방, 노래방, 당구장이나 다니고 말이야...

재현

.....있어.

밥을 크게 떠서 삼키는 재현. 그런 재현을 바라보다가 재현의 머리를 확 누르는 아버지. 코가 닿을 듯 숙여졌다가 금방 고개를 드는 재현.

재현

아, 뭐하는데!

아버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다 흘러들지.
아빠 먼저 출근한다. 학교 잘 가고. 밤에 보자.

재현은 짜증을 참으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신발을 신으며 현관을 나서는 아버지.

S#9 지희의 집 (야외/밤)

신발을 벗으며 집 현관에 들어오는 지희. 걸어 들어오며 스트레칭을 한다. 방에 앉아 가방에서 교차로를 꺼내 방바닥에 펼친다.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거는 지희.

지희

교차로에서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사장 E

아. 몇 살이에요? 목소리는 고딩인데.

지희

네. 학생이요.

사장 E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청소?

지희

근데, 월급 말고 일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장 E

일급? 안 되지.

지희

아.....

사장 E

뭐, 이번 주만?

지희

아니요, ...계속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장 E

뭐야, 그런 건 어디든 안 돼.

지희

...네.

사장 E

안 할 거야?

지희

...네.

통화가 끊어진다. 통화 종료가 표시되는 핸드폰을 얼굴 앞으로 내린다. 핸드폰 액정을 가만히 보는 지희.

S#10 H고 운동장 (야외/오후)

기다리던 재현이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어 지희를 보고는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 넣는다. 뒤를 따라가 지희를 툭 치며 말을 붙이고 나란히 걷는 재현.

S#11 골목길 (야외/밤)

주머니 안에서 불이 밝혀졌다가 꺼지는 재현의 핸드폰. 골목길을 걸어가며 대화하는 재현과 지희. 화려한 색으로 된 짹고 타이트한 교복을 입고 있는 지희. 재현이 못생겼다고 놀리자 가운데 손가락을 피며 욕한다. 더 친해지고 투닥투닥 하는 재현과 지희.

S#12 지희 집 밖 (야외/밤)

집에 들어오려는데 밖에 집주인의 월세 납부 독촉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그리고 문틈 사이에 전기 사용료 및 도시가스비 납세 영수증이 꽂혀있다. 한숨 쉬며 가지고 들어가는 지희.

S#13 지희 집 안 (실내/밤)

통장과 작은 메모장, 계산기 어플을 켜놓은 핸드폰을 앞에 두고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지희. 핸드폰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눕는다. 감은 눈 위로 검지를 들어 눈두덩이를 찌른다.

S#14 도서관 내 (실내/밤)

검지로 핸드폰의 사진첩을 넘기는 지희. 재현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준다. 재현이 재현의 여자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며 놀리는 지희. 우스꽝스럽게 찍은 사진을 보고 웃기도 하며 계속 옆으로 넘긴다. 그러다가 재현과 재현 친구 1,2,3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잠깐 말을 잃는다.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사진을 넘기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지희.

S#15 업소 (실내/저녁)

하루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업소 사장. ‘총 130000원’으로 계산을 끝낸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집어 현금 11만원을 꺼내 지희에게 준다. 지폐를 건네 받아 손가락으로 지폐를 세는 지희, 돈을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S#16 C고 교문 앞 (야외/저녁)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돌멩이를 차는 친구1. 저 멀리에서는 기다리던 지희와 교문에서 나온 재현이 같이 걷는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걸려오는 전화. 친구 2에게 전화가 오지만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재현.

대화하면서 걸어 나가는 둘을 바라보는 친구 1과 친구 2, 학교 건너 벽에 기대어 가래침을 뱉는다. 곧이어 다 핀 담배를 땅에 버린다.

S#17 지희 방 안 (실내/낮)

담배가 많이 쌓인 재떨이를 바라보는 재현, 쓰레기통에 넣고 다른 쓰레기로 덮는다.

S#18 지희집 냉장고-찬장 (실내) : 점프컷

찬장에 채워지고 사라지는 라면들. 냉장고 안에 채워지는 음식과 재료들.

S#19 지희 방 안 (실내/밤)

문제를 푸는 지희의 손. 어려워서 책을 덮고 옆드리지만, 다시 일어나서 풀어보려 노력한다. ‘XX중학교 2학년 정재현’이라고 적힌 수학 참고서와 영어 문제집.

S#20 재현 집 안 > 방 안 (실내/아침)

젖은 머리 위에 수건을 올린 채 식탁에 엎드려 있는 재현, 시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방에 들어가 가방끈을 집었다가 멈추고는 다시 내려놓는다. 가방을 열어 책꽂이의 만화책들을 수북이 넣는다.

S#21 업소 (실내/밤)

가방을 들고 탈의실에서 나가는 지희. 문고리를 잡고 나서다가 멈춰 서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본다. 자신이 입고 있는 분홍색 간호사복을 만지다가 옆에 걸린 동료의 큰 후드 집업을 보게 되는 지희.

지희

언니, 언니!

동료

응! 왜?

지희

나 이거 오늘 입어도 돼?

S#22 지희 방 안 (실내/낮)

방바닥에 앉은 채로 입고 있던 후드 집업을 벗는 재현. 한 쪽에 쪽 세워둔 만화책을 집어 읽기 시작한다. 지희가 과자를 뜯으며 멀리서 쳐다본다. 지희 시점의 홀로 방안에 앉아있는 재현.

S#23 교실 (실내/밤)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후 홀로 교실 안에 앉아있는 지희, 가방을 매며 일어난다. 문을 열고 들어와 지희의 가방을 옆에서 발로 걷어차는 누군가. 비틀거리는 지희.

S#24 재현이 집 (실내/낮)

비틀거리며 방안에서 나오는 아버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재현.

아버지

몇 시냐?

재현

11시.

아버지

벌써? (한숨 쉬고 소파에 앉으며) 아침은.

재현

안 먹었지.

아버지

밥 있냐?

재현

없던데.

아버지

라면이랑 핫반 사와.

재현

(짜증 부리며) 아.

아버지

사 와.

재현

(자리를 일어나며) 어. 돈은.

아버지

어제 입은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재현

어. (의자에 걸린 옷을 뒤적이다가) 이거?

아버지

어.

재현

(지갑을 건네준다)

아버지

만 원이면 되지?

재현

어. (돌아서 집을 나간다.)

아버지

...어?

접다 말고 편 채로 지갑을 계속 내려다보는 재현의 아버지. 굳은 표정의 아버지.

S#25 지희 집 앞 골목길 (야외/밤)

핸드폰의 시각은 0:44 am. 굳은 표정의 재현, 무표정하게 마주 서서 보고 있는 지희.

재현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니가 오늘 괜찮다며.

지희

(화를 내며) 못 가게 하면 못 나가니까 그러지.

재현

(지희의 왼쪽 어깨를 툭 치며) 야,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나도 두 시간이나 아무것도,

지희

(더 굳은 표정으로) 아, 두 시간 더 뛰라는 걸 어찌라고!

화를 내는 지희에 당황해 잠깐의 정적. 그런 재현을 보던 지희가 재현에게 들고 있던 쇼핑백을 던진다. 재현의 몸에 맞고 떨어지는 쇼핑백.

지희

그 개새끼들 술 따르는 거 좋을 것 같아? 나는, 안 힘들 것 같냐고.
왜 다 잘 사는 너네 기준에 맞추는데!

재현

(인상을 구기며)

지희
...등신.

지희가 집으로 들어간다. 쇼핑백 안에 있던 코스튬 옷이 쏟아졌다. 가만히 서서 떨어진 쇼핑백을 내려다보는 재현.

S#26 업소 방 안 (실내/밤)

술에 취해 다들 쓰러져 졸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는 지희. 손님 멤버들의 각각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재현의 아버지의 지갑에서 재현의 증명 사진을 본다. 지갑을 가만히 멈춰 쳐다보던 지희. 졸다가 눈을 뜬 재현의 아버지가 지희를 보고 뺨을 세게 때린다.

아버지

이런 쌍년아. 돈을 훔쳐? 사장이 이딴 짓으로 팁 챙기래냐?

다시 테이블에 조용히 지갑을 내려놓는 지희. 여전히 증명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재현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희의 뒷통수를 손가락으로 민다.

아버지

자식새끼처럼 어린 거, 불쌍해서 오냐오냐 했더니.

아, 씨팔, 나 같이 꼬리 존나게 흔드는 놈도 개새끼인데,

옷 다 벗고, 어? 가슴 다 내 놓고, (아픈 머리를 짚으며 다시 눈감는다.)

(한숨 쉬고) 아, 너 같은 년은, (또 한숨을 쉬며) 씨발.

그러곤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잠든 재현의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재현의 아버지의 지갑을 들어 편다. 재현의 증명사진 옆에 자신이 일하는 업소 명함을 꽂아 넣는 지희.

S#27 교실 안 (실내/밤)

가방이 팔에 걸린 채 교실 바닥에 주저앉은 지희. 지희의 가방을 뺏어내 뒤지기 시작하는 친구 2가 친구 1에게 지갑을 꺼내 건네준다. 지희의 지갑을 열어 돈을 빼는 친구 1. 그러다가 친구 2가 가방 속에서 재현의 이름이 적힌 중학교 시절 문제집을 본다.

친구 2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지희

...

친구 2가 친구 1의 손에서 지갑을 빼내 지희의 얼굴에 던진다.
쭈그러 앉는 친구 2.

친구 2

쫓같은 년이, 씨발, 멀쩡한 애한테까지 몸을 팔아?
이제 머리 다 빠진 아저씨는 질렸냐? 존나 개 더러운 년.

친구 3

(친구 2 말리며) 야, 적당이 해.

친구 2

(지희가 고개를 내리자) 나 보면서 들어.
너 우리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그래? 씨발.
너 같은 게 왜 정재현이랑 붙어있냐고. (지희의 엉덩이를 세계 걷어 찬다.)

지희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개랑 뭘 했다고 지랄인데.

친구 1이 쭈그러 앉은 채로 가만히 있다가 지희의 카라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조금 내려간 왼쪽 속옷 끈을 제자리로 끌어 놓고 다시 손을 빼는 친구 1. 바로 지희의 머리를 세계 친다. 처음부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던 친구 3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얹어놓는다.

암전.

친구 3 E

야, 뭐하는 거야.

친구 1 E

(지희의 머리를 한 대 더 치고) 너 정신 차릴 때까지다.
(책상이 밀리는 소리) 몸은 병신한테 팔아. 등신 말고.
존나 더러운 년.

(뺨 맞는 소리 E.)

S#28 재현 방 안 (실내/밤)

방에 누운 채로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재현. 전원이 켜지자마자 여러 카톡이 온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다가 친구 3이 보낸 동영상을 보게 되는 재현. 아무 것도 뜨지 않는 화면에서는 지희가 폭행을 당해 맞는 소리와 친구들의 욕설이 섞여 들린다.
놀란 재현. 친구 3에게 전화가 와서 받는다.

친구 3 E

.....봤지.

재현

...어. 뭐냐.

친구 3 E

윤지희 불러내던 거, 우리야.

재현

.....

친구 3 E

개는 너, 우리랑 친한 거 아는 것 같던데. 넌 몰랐냐, 등신아.

재현

어.

친구 3 E

윤지희랑 사귀냐?

재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친구 3 E

개 몸 파는 애야. 알아?

재현

어.

친구 3 E

너 윤지희 만날 때 전화 씹는 거 아냐?

재현

아니.

친구 3 E

...우리가 너 이렇게 배려 논 거 아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윤지희는 진짜 안 돼.

재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친구 3 E

.....야, 개랑 놀지 마. ...어?
애들도 너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해...

재현

.....

친구 3 E

.....

전화를 끊어버리는 재현. 세계 핸드폰을 쥔 채 손으로 침대를 내리치다가 침대에 누워버린다.
그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재현의 눈앞에 보이는 의자에 올려져있는 지희의 쇼핑백.

S#29 친구 1의 집 앞 (야외/밤)

집 근처 골목에서 재현이 친구 1을 쭈그려 앉아 기다린다. 친구 1이 집 앞에 도착해 재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춘다. 재현이 그에 친구 1을 올려다본다.

재현

...지금까지 때렸냐?

아무 말 없이 재현을 쳐다보는 친구 1. 재현은 올려다보던 고개를 다시 땅으로 내린다. 땅에 놓은 쇼핑백을 약하게 차 쓰러뜨리는 재현. 친구 1이 계속 내려다본다.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문득 일어서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재현.

친구 1은 땅바닥에 떨어져있는 세일러문 펜던트를 주워든다.

S#30 지희 집 앞 (야외/밤)

돌계단에 쭈그러 앉아 고개를 무릎에 묻은 재현. 쇼핑백을 옆에 두고 앉았다. 쇼핑백 안에는 기름이 담겨있다.

S#31 업소 탈의실 (실내/밤)

캐비닛에 기대어 쭈구려 앉아 고개를 무릎에 묻은 지희.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는 동료 언니들을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그러다가 고개를 내려 교복이 담긴 쇼핑백을 바라본다.

S#32 지희 집 앞 (야외/밤)

고개를 드는 재현. 지희가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채 쇼핑 백을 들고 있는 지희. 서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집으로 들어서는 지희, 말없이 뒤따라 들어가는 재현.

S#33 지희 방 안 (실내/밤)

쇼핑백을 옷장에 넣은 후 외투를 벗는 지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재현. 옷장을 열어본다. 화려하고 많은 코스프레 옷들과 몇몇 벌의 남자 정장으로 차있는 옷장. 재현이 걸려있는 옷들을 바라보다가, 옷걸이 채 크게 품에 안으며 빼 낸다. 옷을 크게 든 채로 현관문을 나서는 재현. 그런 재현을 바라보다가 뒤따라 나서는 지희, 따라나선다.

S#34 지희 집 뒷골목 (야외/밤)

땅에 쌓아놓은 옷더미에 식용유를 뿌린다. 다 뿌리고 나서 빈 통을 던지고, 남자 정장의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를 찾아내는 재현. 다른 정장에서 나온 업소 명함에 불을 붙여 옷더미에 던진다. 점점 불이 붙더니 세게 타오르는 옷더미들.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감싸듯 웅크려 앉은 재현과 지희가 그 옷더미를 바라본다.